

##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UN 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방향

인은숙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위원 (bada999@makehope.org)

### I 요약

-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이슈 연구는 마침내 1987년 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합의했다. 모든 국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개 목표 · 169개의 세부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적용하고 추진해야 한다.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권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구조를 통해 SDGs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행정프레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성을 제고해야 조직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따른 성과와 결과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더디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며,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네와 마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이 하나하나 모여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든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 렌즈로 지역과 정책을 바라볼 시점이다.

I 키워드 지속가능발전,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실천, 거버넌스,

## 1. 지속가능발전 개념 등장

인류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속되어오다 급기야 1950년대 일어난 대형 환경 사고들-런던스모그 사건,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 등-로 인해 그 심각성이 대두, 산업활동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물이 출간되었다. 구체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거나(Carson, 1962),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그 안에서 인간의 활동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거나(Meadows et al., 1972), 인간사회를 중심으로 경제활동과 여타 영역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조명함으로써(Schumacher, 1973) 인간사회와 생태계, 인간사회와 경제활동의 긴밀한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전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의 붐과 함께 환경행정의 기틀이 되었다.

이후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은 지구생태계 파괴 우려에서 제기되는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인간 삶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72년에 시작된 UN의 연구는 1987년 전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이해와 인식

지속가능한 발전은 오늘날 전세계가 직면한 핵심적인 도전 중 하나다. 전지구적으로 지속되는 빈곤과 불평등,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 등에 근거해서 볼 때 21세기를 맞은 전세계는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런 도전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sup>1)</sup>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

1) UNESCO (2009). UN DESD Global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GMEF): Operational Plan. UNESCO.

음 알려진 것은 1987년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3년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에서 제시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서다.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불리는 이 문서에서 처음 제시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소개·제시되었다.<sup>2)</sup> 이 개념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도출된 하나의 정의로 현재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sup>3)</sup>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 나라와 지역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 과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sup>4)</sup> 지속가능발전은 오랜 기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환경뿐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 전체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는 경향으로 확장되었다. 즉 인류는 경제 사회적인 발전과 환경의 질 유지 및 개선 등 사회생활의 서로 다른 측면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평등을 환경의 질과 조화시키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더 나은 것에서부터 근사한 것에 이르는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단어를 귀에 거슬릴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과잉(sustainababble) 시대'에 살고 있다(Engelman, 2013). 월드워치연구소 엔겔만(Robert Engelman) 대표는 지속가능과잉 현상이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다른 방도보다는 환경에 좀 더 유익한'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김은경, 2015).

이러한 현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이해가 없어 국가별 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들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 때문이다. 사회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차별화된 이해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오영석, 이곤수, 2005).

## 2)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

Gladwin 등(1995)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선행연구 메타평가를 통해 포괄성(inclusiveness), 연계성(connectivity), 형평성(equity), 신중성(prudence), 안전성(security) 등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포괄성**이란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인간개발을 포함하여 환경과 인간, 근린과 원거리,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의 인간 차원에 대한 이해는 인구변화, 경제성장, 기술변화, 정치 및 경제제도, 태도와 신념 등 지구환경 변화에 인간이 끼치고 있는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3) Giddings, B., Hopwood, B., & O'Brien, G. (2002).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Fitting them together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10(4), 187-196.

4) Thaman, K.H. (2002). Shifting sights: The cultural challenge of sustainability. Higher Education Policy, 15, 133-142.

**연계성**은 상호 침해하거나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수용을 말한다. 세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편적 교육과 고용기회, 보편적 건강과 재생산 배려,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분배, 안정적인 인구, 자연자원의 토대를 지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평성**은 미래 자원을 크게 훼손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는 세대간, 세대내, 종간 공정성, 세대내, 세대간 공정한 자원 및 재산권 분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비인간 세계를 고려하는 인간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경험적으로는 발견될 수 없고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ity)으로만 발견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인간의 행동이 적절한 보상 없이 현재와 미래에 다른 인간의 이익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인간의 재산 또는 자원 권리를 전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신중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입증 여부를 밝히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의하고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계의 유지, 상호 관련된 사회경제적 체계를 탄력성 있게 만드는 것, 비가역성을 회피하는 것, 재생능력과 수용능력 내에서 인간 행동의 규모와 영향을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엄청난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 체계 구성요소, 알려지지 않은 한계, 생태계 및 사회체계의 복잡한 역학 간의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신중함과 겸손함을 고려하는 것이다.

**안전성**은 만성적인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한 환경파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높은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인간중심적인 구성체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과 함께 생태계와 사회체계의 건강, 임계 자연자본(critical natural capital), 자기조직화, 수용능력, 인간의 자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3)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접근방법

지속가능발전은 한 분야 또는 하나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는 필수적이다(WCED, 1987).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역할은 중요하다. 각 영역의 과제는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하거나, 다른 영역의 과제와 통합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분야 정책의 정책적 결정과 방법의 선택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확대된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행정은 유연하고 자기교정력을 갖추며 각 영역의 목표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법-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접근, 새로운 시스템의 창조, 영역을 넘어서는 협력, 민주적 의사결정-들이 제시되고 있다.

#### 첫째,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접근

정책을 영역별로 나누어 기획·집행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 문제로 전가되거나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모든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 둘째, 새로운 시스템의 창조

드러난 문제를 제거하는 기술적 대응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혁신은 다르다.

#### 셋째, 영역을 넘어서는 협력

다양한 관점에서 혹은 타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기 위한 영역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

#### 넷째,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 또는 시장 권력구조의 영향을 벗어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이 요구하는 철차이다.

출처: 김은경(2012), 『성장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pp.40~41

##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 부문의 역할

UN은 「우리 공동의 미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속가능발전은 한 분야 또는 하나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각 영역이 가져야 할 목표와 운영방식의 변화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

-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치체제
-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생산기반 위에서 잉여생산물과 기술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체제
- 부조화한 발전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체제
- 발전을 위한 생태적 토대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존중하는 생산체제
-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술체제
- 지속가능한 유형의 무역과 재정 흐름을 촉진시키는 국제체제
- 유연하고 자기 교정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제

출처: 홍성태·조형준 역(2005), 『우리 공동의 미래』, p.118

## II. 국제적 합의와 새로운 목표설정

「우리 공동의 미래」는 지속가능발전을 선언한 보고서인 동시에 실천을 위한 각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 분야 과제로는 ‘유연성과 자기교정능력’을 높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후 세 번의 세계정상회의-리우 지구정상회담(1992),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담(2002), Rio+20(2012)-를 통해 제안, 합의, 실천되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각국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임을 합의하였다. 그 실천을 위해 각국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제21」을 작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UNCED;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 1992).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의제21」 작성도 중요하게 되었다. 국가에 비해 도시들의 지속가능발전추진 성과가 높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인류의 보편적 발전전략으로 ‘환경의 보전’,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의미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2012년 리우+20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sup>5)</sup>를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5년 9월에는 전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다. 모든 국가들이 2030년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들여다보기

새천년개발목표는 2000년에 채택되고 2001년에 이행에 들어가 2015년에 종료되었다. 이를 이어받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전세계 차원의 새로운 발전목표가 SDGs이다. SDGs는 MDGs에 비해 포괄적이고 개발재원, 참여주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MDGs는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목표를 설정한 반면에 SDGs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포괄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MDGs는 빈곤 퇴치 등 경제중심, SDGs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아우르는 발전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SDGs를 만드는 과정도 MDGs와는 다르게 논의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SDGs는 17개 목표에 각각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부목표는 총 169개로 이루어져 있다.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다. 17개 목표 중 <목표1~6>은 사회발전 영역의 목표로, 이 목표 달성을 통해 빈곤퇴치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목표8~11>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다. <목표7>과 <목표12~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다. 마지막으로 <목표16~17>은 <목표1>부터 <목표15>까지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을 담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SDGs는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와 수백 개의 지표로 이루어진다.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할 중요한 점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SDGs의 핵심가치다.

5)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밋에서 채택된 빈곤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SDGs의 17개 목표와 주제별 구분을 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목표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 목표2.**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 상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한다.
- 목표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 목표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 목표5.**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목표6.**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한다.
- 목표7.**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
- 목표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 목표9.**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 목표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인다.
- 목표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한다.
-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보장한다.
- 목표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
- 목표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 목표15.**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황폐화를 막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 목표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목표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People (SDG 1~5), Planet (SDG 6, 12~15), Prosperity (SDG 7~11), Peace (SDG 16), Partnership (SDG 17)

## UN SDGs의 주제별 구분

주제		SDGs 목표	
빈곤(2목표, 15세부목표)		1. 빈곤퇴치(7)*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사회발전 (5목표, 53세부목표)	보건	3. 보건증진(12)	
	교육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10)	
	여성	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9)	
	사회/안보	10. 불평등 해소(10)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12)	
환경 (7목표, 61세부목표)	자연/자원 환경	7. 에너지(5) 13. 기후변화대응 :UNFCCC(5) 14. 해양자원	
		사회환경	15. 육상생태계(12) 6. 물과 위생(8) 11. 도시(10)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11)
	8. 경제성장과 일자리(12) 9. 인프라와 산업화(8)		
	경제성장 (2목표, 20세부목표)		
	글로벌파트너십(1목표, 19세부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19)

## 2) SDGs와 지방정부 차원 추진의 중요성

UN이 2015년 9월 SDGs를 확정함에 따라 모든 UN기구들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SDGs에 대한 준비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이 목표와 체계를 부합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할 전망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국가 SDGs 설정 시 다양한 사회구성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에 SDGs 달성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UN SDGs와 연계한 SDGs 설정범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국무총리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UN SDGs 수립을 계기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기구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SDGs의 17개 목표 · 169개의 세부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지역마다 다른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지역수준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고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갖는다면 SDGs의 성공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구조가 전제되어야 하고, 분권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구조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



### 3) 지속가능발전 추진 동향 및 추진체계 구축의 중요성

국내에서도 거버넌스 구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행정의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려는 움직임과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환경부는 26개 부처 합동으로 2016년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수립하였다. 통계청은 UN SDGs 모니터링 지표 작성 등을 통한 국가 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5기부터 서울시, 충청남도, 인천 부평구, 서울 강동구,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선도적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지표개발을 하였다. 인천 부평구는 2012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이후 UN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스템을 완결성 있게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sup>6)</sup>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sup>7)</sup> 서울시 도봉구는 유일하게 기구 설치 조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추진반을 설치하여 2016년 거버넌스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시작하였다.

물론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은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제약요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과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다.

### III. 지속가능발전 실현은 지역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모두 지속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인구밀집, 생활공간의 질 저하, 환경오염과 빈부격차 심화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종 통계에서도 삶의 질과 만족도 측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계획, 예산배분, 조직 위상에서 지역개발 및 경제정책의 정책우선순위나 비중은 높은 편이다. 반면에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의 정책우선순위나 비중은 낮아 당면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정책도구가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지역과 행정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이 요구하는 가치와 행정목표를 포괄하는 철학적 지향이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행정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것은 조직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이 행정의 원리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지속가

6) 인천시 부평구(2011),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연구

7) 서울시(2015),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시범평가보고서

능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의 체계화와 민관산 거버넌스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정책 · 계획 ·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사례 발굴 및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사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토대로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공론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개념의 추상적인 측면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낼 것인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또한 현실 적용의 구체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많다.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따른 성과와 결과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더디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며,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서 구체화된 실행방안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축적되고 교정되면서 확장될 때 공동의 약속은 삶과 현실로 지켜질 수 있다.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라는 한 지자체장의 통찰력 있는 책 제목처럼 동네와 마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이 하나하나 모여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든다.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렌즈로 지역과 정책을 바라볼 시점이다.

## 참고문헌

- 고재경 (2012). 전문가 100인의 진단: Rio+20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
- 권기태 (2013).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The Hope Report』제10호, 2013.5)
- 권기태 (2013).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황과 과제”(『The Hope Report』제13호, 2013.7)
- 김은경 (2012). 『성장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 김은경 (2015). 기업정부NGO구성원간의 지속가능발전인식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7). 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및 실행방안
- 서울시 (2015).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시범평가보고서
- 오영석·이근수 (2005).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239-257.
- 원성수 (200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인식 및 욕구분석:공주시를 사례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4호: 251-276
- 이영한 (2014). 한국의 사회적 지속가능발전 진단 연구. 지속가능연구, 5(2), 1-12.
- 이정삼 (2015). 지속가능발전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차이 분석 및 환경요소 강화방안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 이창우 (2000).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미나 발표논문
- 이홍균 (2000).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한국사회학, 34(WIN), 807-831.
- 인천시 부평구 (2011).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연구
- 제갈돈·박동진·최준호 (2004).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한 주민의 인식. 한국행정학보 38(3):201-220.
- Dempsey, N., Bramley, G., Power, S., & Brown, C. (2011). The soci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Defining urban soci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19(5), 289-300.
- Engelman Robert (2013), Beyond the Flood of Sustainability, Is Sustainability Still Possible?, 2013 World Watch Institute, 지속가능 과잉을 넘어, 지속가능성의 도전, 2013 지구환경보고서, 오수길 외 역, 도요새
- Giddings, B., Hopwood, B., & O'Brien, G. (2002).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Fitting them together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10(4), 187-196.
- Maclaren, V. W. (Spring 1996), “Urban Sustainability Report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2(2).
- Matt Tyrnauer (2008), Industrial Revolution, Take Two: Entertainment & Culture: vanityfair.com
- Pachauri, Rajendra. (2001), Policy-related Research i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Choices. International Review for Environmental Strategies 2 : 1.
- Robert W. Kates, Thomas M. Parris, and Anthony A. Leiserowitz, (2005).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Values, and Practice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olume 47, Number 3, pages 8-21.
- Thaman, K.H. (2002). Shifting sights: The cultural challenge of sustainability. Higher Education Policy, 15, 133-142.
- UN (2015), Seventieth session Agenda items 15 and 116,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조준형 홍성태 역, 2005,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 UNESCO (2009). UN DESD Global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GMEF): Operational Plan. UNESCO.

## <인터넷 자료>

국가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2/20.do>

**IDEA**  
**I HOPE**  
 therefore I am  
 소셜미디어니더스  
**SDS**  
 퇴근후  
 Let's  
**HMC**  
 인종차별철폐 캠페인  
**Good Hope**  
 Social Innovation  
**Camp 36**

문화예술교육 CO-UP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니어소셜미디어스쿨  
 리얼  
 집단  
 지성  
**재난안전연구**  
 지역공동체  
**나눔**

저 아저씨 시민사랑방  
**오포토**  
 이상해요.  
 디지털  
 재발견  
 서울의  
 재구성

**good fund raiser**  
 커뮤  
 니티  
 랩핑  
**사회적 I HOPE**  
 금융

**희망제작소**  
 Asia NGO Innovation Summit  
**리얼립단지성프로젝트**  
 김치찌개데이  
**작은변화**  
**희망탐사대**  
**Make Hope**  
 해피리포터 시민문화예술축제  
 good fund raiser

**웃는마을명함**  
**포드라곤**  
 시민문화예술축제  
**HOPE**  
**목민관**  
**학교**  
**U3A서울**

**감사의식탁**  
**social 사회화기업가**  
**나는 희망한다**  
**Think and Do Tank**  
**Do Tank X**

**희망문화**  
**예술을**  
**예술품**  
**아름다운**

**마을이학교다**  
**도시재생**  
**마을이학교다**  
**마을이학교다**

**도시농업**  
**도시농업**  
**도시농업**  
**도시농업**

**행복설계아카데미**  
**U3A**  
**서울**  
**서울**

**천개의종직업**  
**저버년스**  
**목민관**  
**학교**  
**포럼**

**ANIS SIX**  
**기술**  
**social innovation**  
**공동서비스디자인캠프**

**호혜와연대**  
**HAPPY SENIOR AWARDS**  
**사회적 기업**  
**여러분이 함께**  
**두번따 인생취재**  
**social innovation**

**행복한 공동체 good fund raiser**  
**99%**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사회적 기업가 이상해요.**

**여행사 공공**  
**문화예술교육 희망탐사대**  
**희망지리**  
**NGO**  
**농촌희망본부**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 and Do Tank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문의  
 02-2031-2130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http://www.makehope.org)

